

성적 수치심의 담론

한국 청소년과 독일 청소년의 성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Der Diskurs der sexuellen Scham - Am Beispiel der Sexualerziehung Jugendlicher in Deutschland

저자
(Authors) 도기숙
Do, Ki-Sook

출처
(Source) [헤세연구 29](#), 2013.6, 229-249(21 pages)
[Hesse-Forschung 29](#), 2013.6, 229-249(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헤세학회](#)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92650>

APA Style 도기숙 (2013). 성적 수치심의 담론. 헤세연구, 29, 229-249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1/08 16: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성적 수치심의 담론*

- 한국 청소년과 독일 청소년의 성교육 비교를 중심으로 -

도기숙 (광운대)

I. 서론

독일의 사회철학자인 막스 쉐러 Max Scheler(1874-1928)는 수치심을 존재와 당위의 간극(Kluft zwischen Sein und Sollen)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수치심이란 말하자면 ‘자기 자신 Ich’이라고 느꼈던 자연스러움이 깨지며 이상적 자기(ideales Ich)와 현실적 자기(reales Ich)사이에 모순을 느낄 때 갖는 감정인 것이다. 막스 쉐러는 수치심이 초자아의 형성을 도모하기에 항상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심은 결국 자아를 불안하게 하며 상처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¹⁾

성적 수치심이란 섹슈얼리티가 결부된 수치심을 말한다. 성적 수치심을 연구한 사회철학자 미카 힐거스 Micha Hilgers는 인류 최초의 성적수치심을 아담과 하와의 일화를 통해 설명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서 자기와 세계의 경계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선악이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의 규범 속에서 자신의 벗은 상태(Sein)를 바라보는 신의 시선을 자신과 구별된 타인의 시선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2012S1A5A8023566).

1) Ulrike Bardt: Der Begriff der Scham in der französischen Philosophie, in: Zur Kulturgeschichte der Scham, hg. v. Michaela Bauks u.a. Hamburg 2011, S. 105.

독일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연방 건강정보부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는 2010년 발간한 성교육 자료집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기 Über die Sexualität reden』에서 성적수치심에 대한 무의식적 작용은 어린 시절 부모의 성인식(性認識)을 통해 영향 받는다고 주장한다. <독일연방 건강정보부>는 부모 및 교사의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성적 수치심을 대물림시킨다고 설명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재고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 이것은 성적 수치심이 성폭행, 성희롱과 같은 범죄적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며 세대와 종교관을 포괄한 문화적 담론의 영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은 민감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성적 호기심과 금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상적 자기에 도달하려 애쓰지만 여타의 이유를 통해 대부분 실패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성적 수치심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적 자아가 좌절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부정적 자아상은 이중적 도덕성, 변태적 성향, 관계불안 등을 야기하며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억압하거나 방치하도록 만들 수 있다. 특히, 부모세대에게 솔직할 수 없는 성문화 때문에 이중 잣대를 갖게 되는 청소년의 성윤리관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죄책감과 자기방어를 형성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청소년의 성(性)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사회적 논쟁을 살펴보고 청소년에게 의식·무의식적으로 강요되는 성적 수치심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독일 청소년의 성교육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재고할 새로운 성교육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2) Ebd., S. 106.

3) Martin Gnielka: Über die Sexualität reden... Ein Ratgeber für Eltern zur kindlichen Sexualentwicklung zwischen Einschulung und Pubertät, hrg. von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Abteilung Sexuell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Köln 2001, S. 10 ff.

II. 청소년의 성, 일탈인가? 자기결정권인가?

1. 독일의 청소년 성담론 - 자아실현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

무성(無性)적이던 청소년의 성을 새롭게 문제제기한 것은 독일의 경우 19세기 말이었다. 프리타티즘에 반격해서 청소년의 성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사람은 의사인 막스 호단 Max Hodann과 정신분석학자 빌헬름 라이히 Wilhelm Reich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영향으로 이미 어린이도 성적 존재일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작되던 19세기 말 당시, 라이히는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것은 통치계급의 전략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했다. 성을 정치 및 경제와 연관 속에서 분석했던 라이히는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억압하고 죄악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전통에 묶여 성공을 지향하는 인간으로 만들려는 우민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곧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고했던 학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제이다. 그는 성적 하부구조의 혁명을 통해 어른과 청소년의 성이 전혀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교육학자 크리스타 메베스 Meves는 이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청소년 성담론이 1960년대 발달심리학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메베스는 청소년의 성이 더 이상 금기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1960년대 이후 발달심리학에서도 대세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한다.⁵⁾

1968년 10월에 독일연방은 청소년 성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인간의 정상적인 과정이며 청소년의 성관계도 인간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혁신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시민적 자유주의자들 bürgerliche Liberale의 전통에 따른 이 관점은 오늘날 독일 청소년 성담론에서도 가장 큰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만 해도 단지 30%의 부모들이 딸에게 남자친구와의 동침을 허락했지만 현재는 종교적 이유를 제외한 대

4) Martin Vogelhuber: Von der Sexualpädagogik zu einer Pädagogik der Liebe, Frankfurt a. M. 2006, S. 32.

5) Ebd., S. 33.

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성생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의 69%가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함께 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⁶⁾

하지만 독일 청소년의 성담론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독일은 아프리카 및 중동 아시아계의 다양한 민족은 물론, 무슬림, 기독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를 배경으로 한 다문화 국가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다문화 국가로서 점차 각기 다른 종교와 윤리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독일의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⁷⁾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의 성적 개방성을 거부하는 이슬람과 유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적 상대주의이다. 터키출신 및 아시아권 출신의 학생이 독일학급에서 총 30%를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들 문화권의 사고방식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은 학교의 성교육 프로그램도 일부 재편해야 하며 성적 개방의 정당성에도 상대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의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은 문화와 종교에 대해 배려하는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는 청소년의 성을 권리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성적자유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자유주의자들 bürgerliche Liberale의 주장이다. 이들은 각자 파트너와 사회에 대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에게 무엇이든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은 문화의 상대성이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권리를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청소년의 성을 절대적인 인권문제로 보기보다는 자기를 실현하는 한 과정으로 보는 성교육학 Sexualpädagogik적 견해이다. 성교육학에서는 성적 경험을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보면서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의 능력을 배워나가는 삶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관계를 터부시 하는 (중동, 아시아)문화권의 청소년 입장을 존중해 준다는 점에서 성교육학적 견해는 인권적 입장과 문화적 상대성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 성담론은 68혁명 이후 시민적 자유주의에 따른 절대적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점차 성교육학적 관점

6) Uwe Sielert: Sexualpädagogik lehren: didaktische Grundlagen und Materialien für die Aus- und Fortbildung, Weinheim 2000, S. 126.

7) Vgl. Ebd., S. 132 ff.

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 번째 담론을 근간으로 <독일연방 건강정보부>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생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 교사교육 자료를 개발, 홍보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청소년에게 교육하면서도 다문화 속에서 각자 개인의 종교적, 민족적, 가족적 배경을 스스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 우리나라 청소년 성담론: 성적 일탈 예방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중학생의 3.6%가 성경험이 있고, 고교생의 경우 6.1%로 나타났으며 고2는 8.6%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대 박형무 교수가 산부인과 학회에서 지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3.8%가 임신 경험이 있다.⁸⁾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낮으며 실지로는 중고생 모두 성관계의 경험이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러한 자유분방한 성행태와 달리, 부모세대에서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성인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부모세대는 자녀들이 여전히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한다. 청소년 자녀가 무성적 존재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막연한 기대감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을 내면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성을 금기시하는 부모들의 태도와 성을 교감과 소통의 방식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의 태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성적 경험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자녀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세대의 보수적 태도를 통해 청소년들은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사이의 모순에 빠지고 죄책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⁹⁾

8) 임정혁: 피임교육이 섹스 하라는 소리? 몰라도 너무 모르네, in: 오마이뉴스(인터넷), 2012.02.08 14:26분(<http://kkuks81.tistory.com>).

9)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부모세대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부모세대조차도 자신들에게 이미 내면화된 성적 수치심 속에서 자녀의 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부모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자신들에게 체화된 성문화를 스스로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청소년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모교실>, <부모모임>을 개설하여 부모세대에게 성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기성세대의 모순적 태도는 학교의 성교육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교육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교육하기 보다는 성폭행, 성매매와 같은 성적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초등학교의 교사용 지침서에서 제시된 성교육의 목표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 행동은 날이 갈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독립된 존재로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들은 넘쳐흐르는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들을 접하게 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모방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지식의 습득으로 인하여 [...] 학생 관련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 집단 성행위자, 환각 상태에서의 성행위자, 강간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0학년에 이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초·중등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관련 CD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초등학생을 위한 성교육 지침서에서부터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의 목표가 성적 일탈행동에 대한 범죄예방의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침서는 청소년이 “독립된 존재로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서는 청소년의 성을 자연스러운 권리의 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태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 여기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기본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청소년의 성에 대한 철학적, 문화적 재고 없이 현장의 다급함에 초점을 맞추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성에 대한 학교의 이러한 부정적

10)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교육청: 대상별 성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소중한 성 바로알기, 2010, 7쪽.

인식 또한 의식·무의식으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수치심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담론이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시립 청소년 성문화 센터들의 경우 최근 청소년 성문화 패러다임을 바꾸는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부끄럽고 은밀한 성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한 성을 배우기 위한 성문화 체험관을 마련하고 자궁방, 생명탄생, 임신부체험, 피임 및 낙태, 성폭력예방, 십대연애 문화 등의 주제를 다룬다.¹¹⁾ 청소년들은 이 체험관에서 피임기구를 직접 만져 보고 사용법을 배우며 임신의 과정도 체험기구를 통해 직접 눈과 몸으로 경험한다. 체험방을 나온 후 청소년들은 이러한 체험에 대해 함께 토론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성의 문제를 청소년 성문화 센터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기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색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던 부분과 부적절한 매체를 통해 습득했던 성지식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성문화 센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도 기성세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시립 청소년 성문화 센터에서 피임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재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각 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 이사회는 이것을 청소년의 성관계를 부추기는 행위로 바라보며 승인을 거절한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피임기구를 나누어주는 것이 오히려 밝은 곳에서 성을 바라보고 좀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성세대의 우려를 바꾸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것은 피임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단지 성교육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에 대한 사회의 문화적 담론이 충돌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성적 경험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청소년의 성교육을 보다 현실화

11) 서울시립 창동성문화센터의 경우, 청소년의 체험관 성교육을 연중 800회 실시하며 청소년의 성교육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였다. In: 2011년 노원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 현황 보고서.

시켜야 한다는 논의에는 사실상 기성세대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독일에서 처럼 절대적 인권의 차원에서 청소년을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라는 인간으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균등한 책임을 가르치는 성적 자기결정이 우리나라 문화와 아직은 맞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적 경험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한편으로는 성교육을 통해 피임법을 가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관계를 일탈로 규정하는 애매한 상황이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실현과 죄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적수치심을 대물림받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독일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재고할 수 있는 독일의 성교육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독일의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1. 성교육의 우선 목표: 성적 수치심을 해체하라!

“성행위를 할 때에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소리를 지르나요?”

성적수치심에 눈을 뜨는 나이는 약 3-5세로 볼 수 있다. 이 연령의 어린아이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 차이를 인식하고 성역할의 차이도 인식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 사회적인 금기가 작용하면 성적인 수치심을 내면화할 수 있다. 독일은 유치원에서 이미 남녀의 성기차이를 그림을 통해 교육시키면서 또한 장난감을 통해 남녀의 성기 및 성차에 대해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한다. 남녀의 벗은 몸과 성기 등을 신체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음습하게 여길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강구한다. 특히 장난감이나 그림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제조하여 성에 대한 지나친 환타지나 환멸감도 갖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유치원 때와 마찬가지로 그림과 놀이를 통해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와 성적인 지식을 배우지만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는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피임법을 배운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에 대해 조사해 올 것을 과제로 내기도 하고, 학생들은 팀별로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연스런 감정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즐거운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독일 성교육의 핵심 목표이다.

과제를 맡은 학생들은 예를 들어 발표시간에 콘돔 한 상자와 커다란 당근들을 보여주며 실제로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피임을 설명하는 팀들의 발표에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적극 반응하며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 때, 어린학생들의 질문내용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성교육 시간에는 남녀의 성관계뿐 아니라 동성애나 오랄 섹스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한다. 그런가하면 어떤 남학생은 순진하게도, 왜 성 행위를 할 때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소리를 지르느냐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¹²⁾



독일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 (하노버의 노이프레세, 2011년 11월4일 발췌,
Meine Stadt / Hannover ...neuepresse.de)

독일에서 중학생(7·9학년)의 성교육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중학생에게는 성 인영화나 출산과정을 담은 비디오 등의 시각적인 교재를 통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교는 비뇨기와 및 산부인과 의사들을 강사로 초대해서 성관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12) 박성숙: 독일교육이야기: 꼴찌도 행복한 교실. 21세기 북스 2010, 137쪽.

성교육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성에 대한 수치심을 없애가는 것은 물론, 각종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성교육의 우선 목표가 성범죄의 예방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자기결정권이 라는 점이다.

한국의 성교육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안에 이미 성적 수치심이 내재화 되고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5, 6학년의 성교육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교사용 지침서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이성 친구 사귀는 법

- 용기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다가간다.
- 항상 솔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 자신감을 가진다.
- 많이 웃는다.
- 친구와 취미 활동을 함께 한다.
-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고민이나 힘든 일은 숨기지 말고 이야기 한다.
- 싸우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는다.
-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

이성 친구를 사귄 때의 주의할 점

- 이성 친구에 대해 부모님과 친구에게 소개한다.
- 이성 친구를 만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다.
- 이성 친구끼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한다.
- 상대방이 곤란해질 일은 절대로 요구해서도 안 되고, 내가 곤란해질 일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을 때는 문을 열어 놓는다.
-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나 비디오는 피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이성 친구를 사귄 때의 주의할 점에서 “이성 친구끼리 곤란해질 일은 절대로 요구해서도 안 되고 내가 곤란해질 일도 절대 허락하지

13)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교육청: 대상별 성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초등학교 고학년: 5-6학년, 2010, 74쪽.

않는다”고 지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성 친구 끼리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일까? 혹은 스스로 곤란하지 않는 만큼만 허락할 수 있다는 뜻일까? 이것은 청소년의 성적 자율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성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교육하려는 의도로 보기가 어려우며, 그렇다고 청소년의 성을 엄격하게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은 곧 우리나라 성교육의 이중적인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성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묘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을 부추기며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2. 인격적 소통을 강화하는 성교육 콘텐츠

“사랑에 빠지면 왜 자고 싶나요?”

독일은 성교육 지침서를 <독일연방 건강정보부>에서 맡고 있지만 교사와 성교육 활동가들도 자신들이 개발한 성교육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출판하여 다양한 성교육 방식을 공유한다. 정부와 학교가 주관하는 제도적 성교육 이외에 교사 및 성교육 활동가들이 성인식 전환에 큰 영향을 주는 활용도 높은 성교육 방법론을 출판하고 있다. 성교육학자 로타르 슈택Lothar Staeck은 그의 저서 『구체적인 성교육 Sexualerziehung konkret』(2012)을 통해 각 학급에게 쉽고 재밌게,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소통을 강화시키는 성교육 콘텐츠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2학년까지는 각 학급 뒤편에 <질문쪽지> 상자를 배치한다.¹⁴⁾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성교육의 현실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쪽지 중에서 좋은 테마들을 선택하여 각 학급이 1주일에 1회 정도 토론을 하는 것이다. 질문쪽지의 내용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4) Staeck Lothar: Sexualerziehung konkret, Baltmannsweiler 2012, S. 13.

초5학년(남): :왜 여자들은 꼭 브래지어를 하는 걸까요?

초6학년(남): 사랑에 빠지면 왜 자고 싶나요?

중2(여): 남자 친구가 자꾸 몸을 만지려 해요. 난 싫은데...

고1(남): 저는 조루일까요?

이 때, 익명으로 쪽지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질문한 학생의 인격을 보호하고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성적 궁금함을 학급전체가 공유함으로써 성이 은밀하다는 편견을 깨나갈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성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 및 성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사용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슈텍은 성교육과 감정을 말할 줄 아는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문장완성하기> 놀이를 제안하기도 한다. 캔버스지(80cm, 120cm)에 몇 가지 문장을 적어두고 교실 뒷면에 붙여둔다. 각자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완성하고 그 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중1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해 준다.¹⁵⁾

사랑이란 _____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아는 방법은 _____
 좋은 친구는 _____
 사람은 _____ 내보인다.
 여자들은 항상 _____
 남자애들은 항상 _____
 엄마가 _____ 참 좋다.

이런 <문장완성하기> 놀이는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

15) Lothar Staack: S. 19.

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 병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성과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자연스런 자기감정의 표현은 성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하고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교사(혹은 성교육 전문가)는 학생들의 사고와 생각을 수용해주고 학생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주는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 성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감정과 상처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교사 및 성교육전문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슈택에 따르면 임신과 피임에 관련된 성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별로 작은 상품을 걸고 섹스퀴즈대회를 열거나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풀게 한 다음 토론할 수도 있다. 다음은 독일 고1에게 실시한 퀴즈내용이다.¹⁶⁾

옳은 것에 X표 하기

- 난자는 배란 때 난소 한쪽에서 생성된다.(x)
- 난자는 배란 때 최소한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임신이 가능하다.()
- 정자는 72시간 동안 살 수 있다.(x)
- 고환은 사춘기와 더불어 정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x)
- 정자는 자궁 안에서 난자를 만난다. ()
- 매일 10 만 마리의 정자가 고환에서 만들어진다. ()
- 한번의 사정에서 300-600만의 정자가 나온다. ()
- 난자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세포이다. (x)
- 일반적으로 정자는 산성인 질에서는 죽는다. 이것을 뚫고 지나간 정자가 배란을 기다린다. (x)
- 만약 한 여성이 오늘 8시에 배란이 되었다면 얼마 후에 임신이 될까?
(최대한 18시간, 그러니까 밤 20시) ()

16) Ebd., S. 21.

이러한 퀴즈대회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식을 재밌게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언어와 내용을 공동의 장에서 터놓고 얘기하게 해준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왜곡된 성지식을 수정해줄 수 있다. 교사는 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문제로 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유도하고 토론을 이끌 수도 있다.

성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슈택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학부모모임 Elternabend>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모의 성인식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의 프로그램 연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모의 성인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슈택은 주장하고 있다. <부모교실>을 통해 교사는 부모에게 일일 성교육을 부탁할 수도 있고 학급에서 할 성교육 주제와 범위를 함께 의논할 수도 있다. <부모모임>을 통해 부모들 역시 성적인 문제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을 다른 학부모들과 나누며 교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 이런 모임과 나눔 자체가 부모의 성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성적 수치심이 대물림되는 구조 속에서 부모들의 성인식이 토론과 상담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3. 성교육에서 관계 교육으로

독일은 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 그리고 성관계의 선택여부를 가르치고 있다. 독일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연방 건강정보부>는 2010년 발간한 성교육 자료집 『섹스와 조언: 첫경험 Sex 'n' Tipps: die erste Liebe』에서 청소년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은 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니라 피임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의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 키스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고 싶고 등등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모든 소녀와 소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압박감을 갖지 마세요. 섹스의 첫경험에서 피임기구에 대해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해 파트너와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니다. 그것에 대해 민망해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¹⁷⁾

더 나아가 독일의 청소년 성교육은 성을 욕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Beziehung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성관계가 단지 은밀한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정서적 관계이며 배려와 소통을 나누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섹스와 사랑, 관계와 이별의 문제 등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성기의 위치와 기능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우리나라의 생물학 중심의 성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성이 육체적 관계일 뿐 아니라 정서적 관계라는 사실은 성이 수치스런 동물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런 인간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 준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느낌일 겁니다. 그만큼 첫 번째 사랑의 아픔도 충격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의 아픔에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질투, 상처, 우울감, 지속적인 거짓말 등 관계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평생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¹⁸⁾

독일의 청소년 성교육은 ‘성과 사랑’, ‘성과 인정’의 관계를 설명하며 성교육에 관계교육도 포함시킨다. 또한 청소년이 섹스와 사랑을 통해 긍정적인 것만을 겪을 수 없으며 청소년이 관계를 통해 받게 되는 관계스트레스 Beziehungsstress에 대해서도 일찍이 교육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파트너와 행복한지 아니면 차라리 헤어지는게 좋은지 고민스럽거나 혼란스럽습니까? 다음의 질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아니오로 체크해 보세요.

1. 당신은 지금의 파트너에게 신뢰감이 있습니까?

17) Kirsten Khaschei: Sex 'n' Tipps: die erste Liebe, hrg. von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Abteilung Sexual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Köln 2001.

18) Ebd.

2. 그/그녀가 당신에게 진지합니까?
3. 그/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4. 만약 당신에게 안좋은 일이 생기면 그/그녀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5. 서로 만나서 칭찬을 해줍니까?
6.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합니까?
7. 그/그녀가 당신을 배려합니까?
8. 당신이 뭔가를 얘기할 때 상대방이 잘 들어줍니까?
9.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합니까?

이중에 5가지 이상 <아니오>이면 당신은 이 연인관계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당신의 친한 친구들과 이 고민을 함께 나눠보십시오.¹⁹⁾

청소년의 사랑과 성이 인격적 성숙함과 소통을 배우는 통로여야 한다는 인식이 독일 성교육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12가지의 관계죽이기 Beziehung-Killer 행동방식 (바람피우기, 거짓말하기, 무심함, 자기 말만 하기, 약속 안 지키기, 다른 관계 못하게 제한시키기, 상대방에게 책임 돌리기, 변명 못하게 만들기, 존중이 없는 태도, 욕하기, 다른 이성을 계속 쳐다 보기, 공격적인 태도) 을 제시하며 관계에 성숙치 못한 청소년에게 배려와 소통의 원칙을 전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어떤 태도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성교육에 포함시킴으로써 독일의 성교육은 성적수치심이 육체적인 왜곡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자존감의 심리적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성교육이 섹스와 사랑의 문제를 함께 다루지 못하는 것은 언급한 바처럼 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보수와 개방 사이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칫 청소년의 섹스에 정당성을 준다는 인식을 줄까봐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이드라인조차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VI. 결론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성적 수치심과 이중적 도덕성의 문제는 한국유교전통

19) Ebd.

의 성인식과 서구합리주의 성인식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패더라임의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다. 청소년을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따라서 청소년의 성 또한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혹은 청소년을 ‘주체성을 정립해가는 주체’로 인식하며 청소년의 성을 ‘자기결정권’의 성장 동력으로 볼 것인지는 단순한 이분법적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그 사회문화에 담겨진 정신과 철학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문화에서는 여전히 절제와 규범이 강조되며 전통적 가치를 강조할 것이요, 성을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보는 사회문화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규범과 서구적 합리성의 갈등이 가장 치열한 장소인 섹슈얼리티의 공간은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그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한쪽만을 강조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영역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성을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의 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그 실효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수록 청소년의 성적 비행과 폭력은 오히려 심화되고, 기성세대 또한 청소년의 성을 개방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사회적 정신과 철학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행태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많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변변한 담론의 장마저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방관의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에게 전통적 규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결정권을 성장시키는 것도 아닌 성적 수치심의 은밀한 감옥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의 성행태, 성인식에 대한 사회조사연구는 많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인간학적, 철학적 담론은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독일식의 구체적인 성교육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어도 좋은지는 찬반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적나라한 성교육이 성적 일탈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성에 대한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화적 상대주의 주장도 충분히 숙고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보미디어의 발전으로 세계의 청소년이 같은 문화콘텐츠를 공유하는 시대 속에서 성에 대한 각 국의 전통과 문화를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현실과 과거전통 사이의 간극을 오로지 청소년에게 떠안게 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절대적 인권에 근거를 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했지만 현재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두 가지 논의를 고려하면서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을 재고하는 다양한 토론과 인식이 확장되어야 한다. 성적 죄책감을 치유하는 새로운 담론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교육청: 대상별 성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소중한 성 바로알기, 2010, 7쪽.
- 김대용: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의 문제, 한국교육철학회 30 (2003), 27-45쪽.
- 김윤정: 부모의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112권 2호 (2005), 250-268쪽.
- 박성숙: 독일교육이야기: 꼴찌도 행복한 교실, 21세기 북스 2010, 137쪽.
- 유태양 (외): 한국초등 과학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성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적용, 초등과 학교교육제29권 제1호 (2010), 13-21쪽.
- 이임순 (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 2007년 제3차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 제53권 6호 (2010), 512- 519쪽.
- 이창식 (외):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1권 1호 (2003), 277-296쪽.
- 임정형: 피임교육이 섹스 하라는 소리? 몰라도 너무 모르네, in: 오마이뉴스(인터넷), 2012.02.08 14:26분(<http://kkuks81.tistory.com>).
- 정금희 (외):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 자료의 활용 실태와 평가, 아동간호학회 18권3호 (2003), 313-321쪽.
- 정하성: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14권 2호 (2007), 299-326쪽.
- 최혜영: 성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지식 및 성태도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 44권 1호

(2006), 47-58쪽.

홍봉선: 청소년 성 주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9권 3호(2002), 79-117쪽.

Arens, Ulla: Offenheit und Scham in der Familie: wie Eltern und Kinder unbefangen miteinander umgehen, Ariston, 2003.

Bauks, Michaela: Zur Kulturgeschichte der Scham, Hamburg 2011.

Bernt, Dietmar: Konfliktfeld Sexualerziehung in der Schule, Frankfurt a.M. 1983.

Gnielka, Martin: Über die Sexualität reden... Ein Ratgeber für Eltern zur kindlichen Sexualentwicklung zwischen Einschulung und Pubertät, hrg. von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Abteilung Sexual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Köln 2001.

Guendel, Harald: Psychosomatische Anthropologie. Ein Lehr- und Arbeitsbuch für Unterricht und Studium, Stuttgart 2009.

Hünert, Monika: Rahmenkonzept Sexualaufklärung für Jugendliche, hrg. von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Abteilung Sexual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Köln 2001.

Kalbe, Wolfgang: Scham. Komponenten, Determinanten, Dimensionen, Frankfurt a.M. 2003.

Khaschei, Kirsten: Sex 'n' Tipps: die erste Liebe, hrg. von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Abteilung Sexual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Köln 2001.

Khaschei, Kirsten: Sex 'n' Tipps: Mädchenfragen, hrg. von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Abteilung Sexual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Köln 2001.

Meyer-Lenz, Johanna: Die Ordnung des Paares ist unbehaglich: Irritationen am und im Geschlechterdiskurs nach 1945, Münster 2000.

Milhoffer, Petra: Sexualerziehung von Anfang an! Gemeinsame Aufgabe von Elternhaus und Grundschule, Frankfurt m.M. 1995.

Vogelhuber, Martin : Von der Sexualpädagogik zu einer Pädagogik der Liebe, Frankfurt a.M. 2006.

Sielert, Uwe: Sexualpädagogik lehren: didaktische Grundlagen und Materialien für die Aus- und Fortbildung, Weinheim 2000.

Staeck, Lothar : Sexualerziehung konkret, Baltmannsweiler 2012.

Weiniger, Bettina (u.a.): Sexualität im Beratungsgespräch mit jugendlichen, Wien 2007.

Zusammenfassung

Der Diskurs der sexuellen Scham

– Am Beispiel der Sexualerziehung Jugendlicher in Deutschland

Do, Ki-Sook (Kwangwoon Uni)

Nach Ulrike Bardt kann ein Gefühl der Scham durch die Diskrepanz von Ich und Ich-Ideal entstehen, die in einem Empfinden von Angst und Schmerz mündet. Die sexuelle Scham verbindet Scham mit der Sexualität, indem das geschlechtliche Ich derart infrage gestellt wird, dass der eigene Selbstwert gestört zurückbleibt und zugleich eine Neugier an dem eigenen Selbst und dem noch Fremden geweckt wird.

Das Material zur Sexualerziehung >>Über die Sexualität reden<<, veröffentlicht von der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in Deutschland, weist darauf hin, dass das Unterbewusstsein der sexuellen Scham Jugendlicher durch die Werte und Botschaften ihrer Eltern beeinflusst wird. Der Umstand, dass die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die Kindessexualität immer auch als einen Spiegel der elterlichen Lebensgeschichte begreift, deutet darauf hin, dass dieser Aspekt in der Entwicklung der Sexualerziehung eine große Rolle spielt. Das bedeutet, dass die sexuelle Scham nicht nur durch offensichtlich negative Faktoren wie sexuelle Verbrechen und sexuelle Belästigung geprägt wird, sondern vor allem auch durch die soziopsychologische Atmosphäre, die durch die Werteentwicklung und religiösen Überzeugungen unter denen die junge Generationen heranwächst.

Die sexuelle Scham der Jugendlichen in Korea hängt zum großen Teil mit fest bestehenden und überfordernden Wertvorstellungen ihrer Eltern zusammen. In dieser moralischen Überforderung erfahren die Jugendlichen eine Diskrepanz zwischen Ich und Ich-Ideal, welche in tiefen Schuldgefühlen mündet.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Problemstellung möchte die vorliegende Arbeit daher neue Diskussionen und Programmentwicklungen für die Sexualerziehung Jugendlicher anregen.

Wenn im Rahmen von Eltern-Kind-Gesprächen oder im Sexual-Unterricht Gefühle von Scham aufkommen, so ist dies nichts 'Falsches', sondern vielmehr ein wichtiger Hinweis: Achtung, hier handelt es sich um einen intimen Lebensbereich! Über Sexualität zu reden - in den Familien und in der Schule -, ist der Anfang einer Therapie, die die

Jugendlichen zur Befreiung ihrer Sexualität brauchen.

【주제어】 성적 수치심, 청소년 성교육, 성적 자기결정권, 관계스트레스

【Schlüsselwort】 sexuelle Scham, Sexualerziehung bei Jugend, sexuelle Selbstbestimmung, Beziehungsstress

【필자 E-Mail】 kisookdo@kw.ac.kr

논문 투고일: 2013. 5. 13. 논문 심사일: 2013. 6. 7. 게재 확정일: 2013. 6. 16.